

▲온누리 상품권은 10년 이상 유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30만 인구의 남구 전체를 통틀어 300곳 미만입니다. 지역상품권이라고 하여 가맹점 수가 갑자기 늘어날까 만무합니다. 사정이 이렇더라도 수신회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남구는 '지역화폐 도입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청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으나 발행지역 대부분이 지방의 구 단위 또는 소도시 위주로 남구와 여건이 달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희 남구는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전조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행 따르

듯 막무가내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홍보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기반하여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현실성 있는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30억원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데 1년 운영비가 5억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6%에서 최대 10%가량 할인하여 지역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면서까지 발행을 독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상품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한다면 재정악화가 심화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른 지역의 지역상품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018년 7월 판매가 중단된 바 있는 '강화사랑 상품권'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5%씩 할인 판매하느라 재정 손실금이 1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전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2017년 '강원상품권'을 480억원 규모로 발행했으나, 이 중

법인과 개인의 구매율은 10% 미만이고, 나머지 90%는 강원도 예산으로 재구매했다고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강원 상품권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가맹점이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상품권 장(할인판매)'을 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고, 군 공무원들에게 매일 얼마씩 할당 판매를 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역상품권이 당장은 지역 내 자금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었지만 멀리 보면 지역상품권이 불법 현금화되면서 지역상품권 가치가 실제 현금가치보다 떨어질 우려가 큼니다. 금융권에서도 지역상품권 이동성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뇌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마음만 먹으면 지역상품권을 쉽게 위·변조할 수 있지만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역상품권은 남구에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음성 유통되는 예를 단지로 전라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미 순 의원  
(용호1)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토론,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 받지 않아야 하는 의회활동의 기본적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의장의 일방적 정회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7월 5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도 여당의원들의 정회 요청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되었습니다.

7월 12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다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하였으나 11시34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의장이 정회 선포하였으며 15시10분, 15시30분, 15시45분 3차에 걸친 속개 요청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남구청장의 무기권 무원칙 인사참사 및 지역상품권 도입에 따른 문

## 누구를 위한 남구인가

제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의회활동이 지속적인 방해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회의가 의장의 일방적인 정회와 야당의원들의 속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산회까지 이어진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여당의원들이 말씀하시는 협치입니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남구청 직원들의 인사참사에 대한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로 780여명의 구정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재 모으기에 힘써라"는 지도자의 덕목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겠지요. 인재의 어떻게 모으느냐가 지도자의 자기생존 방식이 됩니다. 창고를 채우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인재를 축적하는 일에 힘을 쏟으라.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도자의 자세는 바깥이 아닌 안, 남이 아닌 나를 경계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권은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 남구청은 구청장 혼자만의 구청이 아닙니다.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목소

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소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구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지역상품권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당당히 나와 답변하시면 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보완해 가며 해결방안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질의와 의견제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소통을 강조하시는 구청장님의 업무철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님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하지 마시고, 의장으로서 공정하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구정질문 등을 우선으로 허가 하시어 원활한 의사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의 자리는 정당의 입장 보다는 종립의 위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지원해주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차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신중 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배려 없는 일방적 지시와 구성원들의 반목유발은 구 시대의 유물입니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설득과 협력으로 참 민주주의 의정활동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구의회,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모두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니다.

# 10월부터 남구 주요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 50km

‘안전속도 5030’ 부산 전역 실시… 이면도로 시속 30km

황령대로·신선로·변영로 등 물류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차량 속도를 낮춰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부산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 그 외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30

km로 제한속도를 낮춰 운행하는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다. 하지만 광안대교와 도시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기존 제한속도로 운행한다.

시는 2017년 전국 처음으로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자동차사고가 크게 감소

하는 등 성과를 확인해 이번엔 부산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 경우 분포로, 수영로, 오륙도로 등 관내 12개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진다. 그 외의 도로에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하지만 8부도로, 북항로, 신선로, 중창대로, 황령대로 등 5개 물류도로는 기존의 제한속도 60km로 운행되며 변영로(도시고속도로)도 80km로 유지된다. ☎607-4561

■남구 주요도로 속도 제한 (10월부터 시행 예정)

도로명	길이(m)	제한속도
8부도로	1,360	60km/h (물류도로는 ‘안전속도 5030’ 예외)
북항로	2,193	
신선로	7,104	
중창대로	12	
황령대로	6,018	
분포로	1,978	50km/h
석포로	2,519	
수영로	4,988	
신선대산북로	2,648	
오륙도로	1,378	
용소로	1,140	
용호로	3,557	
우암로	5,428	
유연로	3,097	
유연광화로	2,303	
자성로	276	
전포대로	2,262	

※ 그 외 도로 제한속도 30km/h

## 용호3동 마을건강센터 이전 개소

용호3동 마을건강센터가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독립공간으로 이전해 새로 문을 열었다.

용산초등학교 아래(남구 동명로 164번길 40) 2층 건물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이전한 마을건강센터는 1층 건강상담실, 사무실, 보건교육실로 사용하고 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한다.

상담간호사, 마을건강활동가, 치매안심센터 등 5명의 전담인력을 배

치하는 등 시설과 인력을 확충한 용호3동 마을건강센터에서는 기존의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운영, 주민 조직 활동 등의 사업 뿐 아니라 치매안심마을의 거점 역할 수행과 웰다잉 사업 등을 더하여 용호3동 주민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의 ☎607-6771~2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남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

남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남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용호동 526-2번지 일원) 내 순환경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7월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앞으로 남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607-4712

## 대학생 행정체험형 단기인턴 실시

남구는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행정업무 경험할 수 있게 돕는 행정체험형 단기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인턴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총 32명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10명이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주5일 6시간 근무하며 1일당수비 5만 5,100원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남구청, 사업소에 배치되어 대민업무를 직접 보조하며 행정업무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된다. ☎607-4294



■이달의 친절공무원

대연5동 박진희 주무관

△전접신고 차 방문하였는데 가식 아닌 진심으로 친절하고, 민원인이 될 원하는지를 알고 진심으로 대해 줌.

△친절하고 따뜻하게 응대해줘서 감사함.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안내

로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  
△설명령을 너무 잘해줌.

△공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전화해서 해결해 주려는 모습에 감동.

△연급금단 제출서류가 복잡해 문자를 보고도 어려웠는데, 일일이 설명해주고, 시간이 걸려도 미소 짓는 모습이 최고의 공무원임.

로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  
△설명령을 너무 잘해줌.  
△공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전화해서 해결해 주려는 모습에 감동.  
△연급금단 제출서류가 복잡해 문자를 보고도 어려웠는데, 일일이 설명해주고, 시간이 걸려도 미소 짓는 모습이 최고의 공무원임.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집중 단속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의무보험 가입 후 행정관청에 등록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은 2회 적발 시 형사 입건조치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남부경찰서와 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을 꾸준히 펼칠 방침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문의는 남구청 교통행정과 ☎607-4495



## 여름철 폭주족 특별 단속

8월말까지 여름철 폭주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마이크 등 위력파시 및 난폭운전 중 불법행위 △불법튜닝 차량으로 속도 경쟁 등 교통사고 위험행위 △무등록·변호판 미부착 운행 이륜차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을 단속한다.

### ■구정 브리핑

####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

남구가 8월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준다.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남구는 식당, 주점업, 노래방, 상가, 병원 등 관내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남구 청소년성과(☎607-4442) 또는 동주민센터 7곳(대연1·3·5동, 용호1·2동, 갈만1동, 문현3동)에 전화로 예약 신청 후 신변증상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남구는 화장실 이용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등 불법촬영카메라 범죄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음주운전 피의자 또 검거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6월에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음주운전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 7월 9일 오전 4시 30분경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관제요원이 관내에서 20대 남성 2명이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발견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을 집중관제 하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음주운전의 동선을 추적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남구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관제요원을 우수관제요원 구청장 표창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노고를 격려했다.

#### 남구 드림스타트 언어발달 사업 지원 협약

남구 드림스타트는 언어발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언어평가 언어평가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태하(대표 박영세)와 ‘드림 우리아이! 언어발달’ 사업 협약을 맺었다. ㈜태하는 언어치료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하은언어치료센터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서면지침과의 연계를 통해 2019년 하반기 동안 500만 원 상당의 언어 평가 및 치료서비스를 남구 드림스타트에 제공한다. ☎607-6482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비 지원

주택용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혹은 교체하면 비용을 지원한다(창고, 공장 등은 제외).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시 가구당 최대 336만원, 철거 처리비가 남는 경우에는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지붕 개량비 최대 302만원을 포함해 철거·처리비 최대 336만원 등 총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월까지 남구청 환경위생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607-4395

#### 2019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남구는 2019년 지하수 이용실태 방문 조사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지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시설을 전반 조사를 조사 대상은 허가·신고된 지하수 시설 351곳이다. 지하수시설 조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해 조사한다. 문의 남구 건설과 ☎607-4637